

## 영어본문문체론의 전제

홍 경 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말은 우선 논리에 맞게 해야 알아들을수 있다. 논리에 맞게 말한다는것은 말의 앞뒤가 맞아떨어지게, 생활의 논리, 사상의 논리, 행동의 논리에 맞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120페이지)

말과 글을 생활의 논리, 사상의 논리, 행동의 논리에 맞게 앞뒤가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전제를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문체론에서 말하는 전제는 말과 글을 생활의 논리, 사상의 논리, 행동의 논리에 맞게 전개해나가기 위한 바탕이다.

말과 글이 논리적으로 펴이자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나 글을 읽는 사람에게 서술내용의 사실여부가 미리 인정되거나 진리성을 가지기 위한 필요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체론이나 어용론에서 말하는 전제이다.

문체론적전제는 말과 글에서 언어환경의 주객관적요소들을 배경지식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전제로 하여 말과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전제는 언어교제쌍방이 다 알고있는 배경지식과 정황의 장면으로 그리고 적어도 글을 읽으면서 문맥에 의하여 판단할수 있는 정보이다.

영어문체론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전제를 동기 또는 바탕이라고 하며 전제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수법을 비유라고 한다. 그리고 비유법술어들인 대의는 곧 전제를 의미하며 매질은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유라고 말할수 있다.

례: Like a crack in a plank of wood which cannot be seal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ker and capitalist was ineradicable in the exploiter society.

(네판자에 난 갈라진 틈을 다시 붙일수 없듯이 착취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차이는 없앨수 없다.)

우의 실례에서는 네판자의 틈을 다시 붙일수 없다는 일반상식을 전제로 하여 직유법이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은유법은 직유법보다 더 함축적이며 그만큼 암시적의미도 더 많이 내포하고있다.

례: The ball of cooperation has already been kicked off, and I hope both sides will do their best to keep the ball rolling. (협조의 공이 차졌으니 쌍방이 이 공이 계속 굴러가도록 최선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우의 실례에서는 《협조》가 진행되는것을 굴러가는 《공》의 속성과 일치시켜 전제를 마련하고 《공》과 관련된 단어들을 문장의 다음부분에서 자유롭게 쓰고있다.

아래의 실례는 은유가 nursery book로 설정된 전제에 의하여 본문의 전반으로 확대되는것을 보여준다.

례: “Time” is also a nursery book in which the reader is slapped and tickled alternately.

It is full of predigested pap spooned out with confidential nudges. The reader is never on his own for an instant, but as though at his mother's knee, he is provided with the right emotions for everything he hears or sees as the pages turn.

(《타임》잡지는 또한 동화책이다. 유모와 함께 동화책을 보는 아이처럼 독자는 찰싹 맞기도 하고 살짝 간질리기도 한다. 잡지에는 남모르게 쿡쿡 찌르면서 숟가락으로 퍼주는 연한 음식물이 꼭 차있다. 인공적으로 소화시켜 소화시킬 녀려가 전혀 없다. 엄마무릎에 앉은 아이처럼 독자는 페이지가 넘어가는데도 듣고보기만 하면 되고 그에 대한 감정은 이미 옳바른것으로 정해진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본문은 어린애가 동화책을 어머니나 탁아소보모가 번지는대로 보는것을 련상시킴으로써 어린이와 같은 처지에 빠진 《타임》잡지의 독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보여준다.

은유의 리해와 사용에서는 전제를 주는 첫 단어를 잘 선택하거나 파악하여야 한다. 첫 단어나 표현이 전제로 되어 표상을 주며 그에 기초하여 비유적흐름이 전개된다.

례: Even before the first blizzard, the residents of Dormitory No. 3 were snowed in by an avalanche of work.

(첫 눈보라가 치기도 전에 벌써 3호기숙사생들은 눈사태처럼 몰려드는 과제에 파묻혀 밖에 나옴을 못하였다.)

우의 실례에서는 《때는 첫 눈보라가 치기 전이다.》라는 전제를 문장의 첫 부분에 줌으로써 아직 강설로 밖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추위는 아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blizzard에 의하여 주어진 표상은 was snowed in, avalanche로 이어지면서 사실과 대조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독자들은 흔히 blizzard를 전제로 하고 사용된 snowed in을 본뜻 그대로 리해할것이 아니라 그 비유적의미를 포착하여야 한다.

은유를 비롯한 비유법이 쓰인 영어문장의 번역에서는 글의 논리를 잘 파악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의 실례에서는 《아직 겨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습과제가 너무 많아 밖에 나옴을 못한다.》라는 논리적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 비유적의미들을 거기에 덧붙이는 식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어휘문체론적수법인 반어법에서도 전제가 단어의 본뜻을 반대의 뜻으로 리해하게 한다. 아래의 실례는 영국의 제임스 1세(17세기초 영국의 왕)가 차린 왕실연회장면을 그린 대목이다.

례: Later the company flocked to the window to look into the palace courtyard below.

Here a vast company had already assembled to watch the king's bear fight with greyhounds, and mastiffs bait a tethered bull. These delights were succeeded by tumblers on tightropes and displays of horsemanship.

(나중에 손님들은 창문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궁전뒤뜰안을 내려다보았다. 아래에서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왕의 곰이 그레이하운드종 사냥개들과 싸움을 하고 마스티프종의 사나운 개들이 말뚝에 매놓은 황소를 약올리는것을 보고있었다. 이 재미나는 장면에 뒤이어 높은 바줄에서의 공중제비와 말타기재주가 펼쳐졌다.)

이 글을 쓴 력사학자는 제임스 1세의 물취미를 조소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생동한 실례들로 전제를 설정하여 독자들이 delights(재미나는 장면)를 《험오스럽고 잔인한 행위》로 리해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실례에서도 전제를 위한 어휘적수단들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례: In the evening the wounded boy was taken to a Burmese doctor, who, by applying some poisonous concoction of crushed leaves to his left eye, succeeded in blinding him. (저녁에 부상당한 애를 만마의사에게 데려갔다. 의사는 독풀을 짓이겨 만든 그 무슨 혼합물을 아이의 왼눈에 붙여서 눈을 멀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우의 실례에서 반어적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동사 *succeed*이다. 만마의 의사는 《성의껏》 치료하느라 했는데 결국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필자는 의사의 치료과정을 의아하게 지켜보면서 그 감정을 *poisonous concoction*에 담고있다. *concoction*은 비록 여러가지 약재를 혼합하여 만든것이라는 뜻이지만 그 기본의미인 《꾸며낸것, 날조해낸것》을 문맥에서 련상시킨다.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하여 뒤따르는 *succeeded*가 성공하면 안되는 경우에 성공하였다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한다.

만일 우의 실례에서 *concoction*대신 *mixture*를 사용하였다면 반어적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을것이다. *cough concoction*이라고 하면 감기약이 가짜이라는 뜻빛같이 진하게 느껴지고 *cough mixture*라고 하면 약이 담보된다는것으로 리해하게 된다.

전제는 글에 나타날수도 있고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추리로 판단될수도 있다. 말과 글의 전제 특히 사회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한 배경지식은 글이나 말로 나타나지 않는 의미를 자동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잠재의식속에 존재하는 배경지식은 이전의 체험으로 새로운 체험을 리해하게 하는 낯익은 모형(schema)을 형성하여 언어행위에 작용한다. 사회생활의 다양한 분야를 반영하는 이러한 모형을 개별적으로는 틀(frame)이라고 한다.

실례로 아파트살림집에 대한 틀은 전실, 침실, 부엌, 세면장 등으로 이루어져 살림집이라고 할 때 틀의 구성요소로 마련되는 전제는 흔히 말이나 글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례: Apartment for rent. 500 £. 0191-589 5833

(아파트살림집임대. 500 UK £. 0191-589 5833)

우의 짝막한 광고를 해석할 때 추리의 기초로 되는것은 《X가 아파트살림집이라면 거기에 전실, 침실, 부엌, 세면장 등이 있다.》라는 《아파트살림집에 대한 틀》과 광고로서의 《아파트살림집임대에 대한 틀》이다. 광고를 읽는 사람은 이러한 틀에 의거하여서만 《500 UK £》 다음에 놓일수 있는 정보공간을 《년간》이 아니라 《월간》으로 채우게 된다. 《주간》이 아니겠는지 하면서 아리송해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즉시 이러한 광고를 여러번 보아서 형성된 《아파트살림집임대에 대한 틀》을 발동하여 《주간》이라는 판단을 취소하게 된다.

사람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동적인 모형(schemata)들을 대본(script)이라고 한다. 대본은 사건진행순서를 밝힌 기존지식구조이다.

사람들은 병원, 영화관,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종다양한 활동의 절차나 과정에 습관되어있다.

례: I stopped to get some groceries but there weren't any baskets left by the time I arrived at the check-out counter I must have looked like a juggler having a bad day. (나는 남새를 좀 사려고 들렀었는데 바구니가 하나도 없어서 출납대에 이를 때쯤 해서는 분명 신수나쁜 날을 만난 요술사처럼 보였다.)

남새상점에 있는 바구니를 들고다니며 매대들에서 남새를 골라담은 다음 출납대로 가

는것은 이미 공통적으로 체험한 《남새를 사다》에 대한 대본이기때문에 우리의 실례에서는 이러한 공정들이 압축되었다. 대본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사건진행과정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있다는 전제로 하여 말과 글에서는 거의나 언급되지 않았던것이다.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사이에는 이러한 현상이 이따금 리해상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의 하나로 된다. 외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문화적충격》을 될수록 줄이기 위하여 《문화간모형》을 형성시키기 위한 배경지식전수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말과 글의 전제를 담은 《모형》, 《틀》, 《대본》 나아가서 《문화간모형》이 다른것으로 하여 있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어용론》과 《대비어용론》의 주되는 연구대상으로 될뿐아니라 본문의 문체론적분석을 위한 중요한 인자로도 된다.

우리는 전제를 비롯한 문체론적분석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외국어교육에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실천형의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